

20세기 한의학의 ‘신’(新) 고전 탄생*

— 이제마(李濟馬)와 사상의학(四象醫學)

김 성 수**

[초 록]

이제마와 사상의학은 독창적인 의학사상 때문에 허준의 『동의보감』과 함께 한의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조선 최말기에 저술된 『동의수세보원』은 이제마가 기대했던 것만큼 평가를 처음부터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1910년대 처음으로 조직된 한의사 단체인 조선의생회의 기관지였던 『한방의약계』에 소개된 이제마의 의학은 사상설로 소박하게 평가받았을 뿐이다. 이후 사상론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경성의 한의학계에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이제마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학운동 등을 계기로 형성된 조선의 문화를 재조명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조를 확장시킨 것은 1930년대 중반 동서의학논쟁의 주요 논자였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주제어: 이제마, 사상의학, 이을호, 한의학

Lee Jem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ee Eulho, Korean Traditional Medicine

이을호였다. 이을호는 체질의학으로 사상의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상의학의 사상적·의학적·약물학적 분석 기사들을 신문 지면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이제마는 조선을 대표하는 의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으며, 그의 저서 『동의수세보원』은 허준의 『동의보감』과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 — 다른 말로 한의학의 신고전의 형성과정 — 은 봉건적·신분적 규범에 따른 의학의 권위형성 방식이 학문적 정합성과 대중적 인식도로 점차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 머리말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의 역사 공간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치적 자주권의 상실과 함께 조선 혹은 대한제국의 왕실(황실)이라는 기존 권위가 빠르게 붕괴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위·권력으로써 일제 통감(총독)이 등장하였다.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실상의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의 형태는 식민지 권력과 사회의 근대화라는 양축에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의학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서양식 근대의료 중심체제로의 전환은 적어도 고유의 의학이라고 자부하였던 한의계로서는 큰 위기로 간주되었다. 제증원(이후 세브란스)의 설립을 시작으로 서양의학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한의계와 병존하도록 설계된 대한제국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의학계의 정치적 주도권이 철저히 서양근대의학으로 귀결되는 동시에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의사들이 겨우 의생 면허를 가지게 되는 상황은 새로운 국면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기본 모순인 식민성과 근대성이 한의계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총독부병원의 설립 등으로 가시화되는 서양근대 의료의 정착과는 다르게 의생의 처지로 몰락한 한의들에게 식민지 공간은 너무나 모순이 가득하였다.¹⁾ 서양의학을 학습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식민·피식민이라는 관계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의사의 위치는 점점 확고해져갔다. 반대로 한의계는 어떠한 방식이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찾아야만 했지만, 서양식 병원·교육기관 등을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의원이나 약국의 자본으로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측면에서 대응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의료인의 이분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하등의료인 — 의생 — 으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들이 주목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물론 서양의학에 비해 훨씬 친근하고 익숙한 치료였지만, 그것만으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해 설득할 수 없다. 한의계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였다.

과거 서양의학 전래 이전 한의학은 특별하게 권위를 창출할 필요가 없었다. 굳이 말한다면 조선사회의 의료체제 안에서 의사의 권위는 그가 진료하는 환자의 신분이 어떤가와 직결되었다. 최고의 의사는 내의원(태의원)에서 국왕과 왕실을 진료하는 의사인 내의(內醫)였다. 즉 의사의 권위는 봉건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권이 사라진 일제강점기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최고의 의사, 뛰어난 의사의 기준은 왕

1)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라는 과정에서 조선의 의학이 처했던 모순관계에 대해서는 신동원과 박윤재의 대표적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신동원(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박윤재(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그러나 서양의학의 이식이라는 측면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한의학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여인석의 연구를 통해, 이 시기 한의학이 처한 과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여인석(2008), 「한의학의 근대성과 식민성」,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아카넷].

실 권위나 전통적인 의학이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구성원 개별자들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이번 기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전을 형성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러한 사정은 의학계라고 해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으며, 식민성과 근대성이 중첩된 일제 강점기는 더욱 강제되는 측면이 있었다. 여기서는 한의학을 대상으로,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식민지 공간에서 ‘신’ 고전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제마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의학,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거론할 때, 『동의보감』(東醫寶鑑)과 함께 절대로 빠지지 않는 저술이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이다. 무엇보다 이 저술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함께 중의학과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성을 강조하고 싶은 한의계의 바람과도 적절히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²⁾

이제마와 『동의수세보원』이 이처럼 매우 적극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특히 1920년대 후반 이후이다. 이제마와 사상 의학은 식민지 공간에서 민족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고, 한의계의 고전이 된 이유에 그러한 사정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한 신동원의 연구는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제마의 등장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이제마와 사상 의학이 새로운 한의학으로 소환·정립되어 가는 과정이 갖는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한의학이 자신을 다시 구성하려고

2) 이제마와 사상의학에 관해서는 한의학계, 철학계 등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사상적 기반, 의학적 특성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이 글에서는 사상의학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보다 주목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상의학이 한의학계에 주도적 의학으로 등장하게 되는지와 그것이 담고 있는 사적 의미의 탐구이다.

3) 이에 대해서는 최근의 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Shin, Dongwon (2006), “Nationalistic Acceptance of Sasang Medicin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 (2)]. 20세기 초 민족주의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탁견이다.

한 노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그 저변에 중세성의 극복과 근대성의 새로운 인식이 깔려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봉건권위 속의 이제마

2.1. 이제마와 사상의학의 전파

이제마는 1837년(헌종 3) 3월 19일 함경남도 함흥군 주동사면 둔지리에서 진사 이반오(李攀五)와 경주김씨 사이에서 장남이자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그는 경학뿐만 아니라 의약과 복서에도 능통하였는데, 평소부터 병법을 좋아하고 무인이 되기를 원하여 호를 동무(東武)라고 지었다고 한다. 1875년(고종 12) 39세에 무과에 합격하여 다음해에 무위별선(武衛別選) 군관(軍官)으로 벼슬에 나갔으며, 1886년 진해현감겸병마절도사(鎭海縣監兼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가 1889년 12월에 퇴임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의서의 저술에 착수하여 1894년 4월에 『동의수세보원』 상하 2권을 저술하였다. 1896년에 최문환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선유위원(宣諭委員)에 제수되고, 이듬해인 1897년(광무 원년)에 고원군수(高原郡守)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98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는데, 그는 함흥에서 1900년 가을까지 한약국인 보원국(保元局)을 경영하다가 1900년 9월 21일 문인 김영관의 집에서 사망하였다.⁴⁾

이상이 실록이나 관보 등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의 생애 전반이다. 그는 생전에 두 권의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 6월에 문인들이 모여 스승이 미처 개편을 끝내지 못하였던 『동의

4) 이기복(2014),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 동아시아 의학 전통의 재구성 — “천인생명 장부의학”의 탄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3-49.

『수세보원』의 증보판을 출판하였다. 이 증보판은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확충론(擴充論)·장부론(臟腑論)·의원론(醫源論)·광제설(廣濟說)·사상인변증론(四象人辨證論) 등 7편으로 되어있다. 신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마는 자기가 지은 의학책 제목을 선택할 때, 독창성을 과시하기 보다는 의학 본래의 정신을 잘 함축하는 어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수세보원’(壽世保元)이라는 이름도 이미 17세기 초엽 명대 의학자인 공정현(龔廷賢)이 자신의 의서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공정현은 이제마가 『의원론』에서 높이 평가한 공신(龔信)의 아들이며 부자가 함께 의학에 능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수세보원’은 의학의 정신, 선학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며, ‘동의’(東醫)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조선의 고유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⁵⁾ ‘동의’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술어였다. 그것은 조선의 의학 전통과 의학 수준을 중국의 남의(南醫)와 북의(北醫)의 양대 전통과 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반면 이제마는 ‘동의’를 사용하였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허준과 달랐다.

그는 자신의 의학이 ‘동의’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그 이전의 의학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자평했다. 이제마는 자신이 창안한 의학이 이전의 중국과 조선의 의학 전통 전체를 상대로 하는 진정한 발견이라고 자부했다.⁶⁾ 즉 “내 평생 의약을 경험했는데, 5천년 의학의 역사에서 선학의 저술에 힘입어 우연히 사상인(四象人)의 성리(性理)를 얻어 『수세보원』을 지었다.”고 말하였다.

5) 이 글에서도 다시 밝히겠지만, 사상의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마가 아닌 그의 후학들이었다.

6) 이기복(2014), pp. 140-148.

이 책은 비록 요즘 사람의 손에서 나왔을지라도 실로 천고(千古)의 의학자들 전통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책이다. 이 책은 고금의 옳고 그름을 맡고 의약의 기준을 결정하니, 비록 한 자라도 잘못 쓴다면 글을 함부로 지은 자의 커다란 잘못이 될 것이다.⁷⁾

그렇다면 이제마의 자평이 아닌 당대의 사람들은 이제마와 그의 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1902년 이제마를 기리는 추사대(追臺臺)가 함흥에 건립되었는데, 거기에는 “군민들이 서로 기뻐하며 말하길, ‘공은 지금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들의 부모이시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제마의 의학적 공로가 아닌 최문환의 난을 토벌한 것에 대한 칭송이었다. 의학과 관련해서는 다만 “백성들이 크게 쓸 수 있도록 책을 지었으니 『격치고』와 『수세보원』 등 저술이 세상에 행한다.”고만 하였다.

이제마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문인이자 1914년 『동의수세보원』의 서문을 쓴 한교연(韓敎淵)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전체적으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은 그 입론이 비록 간략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는 대요를 함께 갖추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세상에 미친 공덕과 은택을 따지자면 어찌 열세가지 경전과 신농·황제 및 요·순·우 삼세의 책에 그칠 뿐이겠는가? ...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삼가 이 책이 단지 ‘동의’의 술서일 뿐이라고 말하며 선생은 병을 잘 다스리는 그저 ‘동의’일 뿐이라고 잘못 알지 말지어다.

일견 다른 의서들에 비해 매우 짧은 분량인 『동의수세보원』이지만, 그 안에는 의학의 큰 가르침이 다 있으므로 신농·황제 등이 남긴 저술과

7) 『東醫壽世保元』(咸山沙村 甲午舊本), 「東醫壽世保元太陰人論 卷之四」, 「四象人辨證論」. 안상우 편(2003), 『한국의학자료집성 II — 해제편』, p. 50.

비견하여 전혀 뒤질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한교연이 그의 문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견 당연하기도 하며 한편 매우 높은 평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마의 고향인 함경도 지역이나 문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그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평가가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내용은 1905년에 실린 약국광고였다.

○天地間萬物리 盡受陰陽氣而惟人은 萬物中最靈인디 至今까지 人이 陰陽四象이 有호 症을 未知호고 但 以病에 陰陽六徑이 有호 症만 知호 故로 自古及今에 醫藥經驗이 或中 或否이더니 李濟馬氏가 人이 陰陽四象이 有호 症을 研究始達호고 神農以後 醫藥書를 一一考閱호야 醫藥特別更定호엿스니 第一衛生에 大關係也라 自此로 陰陽形體를 詳辨用藥則 無不貫中호옴기 今에 四象勸濟局을 東署蓮花坊後井洞第一百十六統八戶에 新設호엿사오니 唯我同胞中 有病人은 特來問議호시옵 四象勸濟局主人 韓敷淵 告白⁸⁾

한효연(韓敷淵 혹은 韓孝淵)은 4일간 같은 광고를 매일 『황성신문』에 냈는데, 그는 이제마의 문도였던 한교연이나 한창연(韓昌淵)⁹⁾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이제마와 친인척 간으로 보인다. 한효연은 사람들이 음양육경으로 대표되는 『상한론』만을 알고, 이제마가 밝힌 음양·사상(四象)이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상창제국(四象勸濟局)이라는 약국을 개설하였음을 광고한다. 별다른 기록이 없다면 한효연

8) 『皇城新聞』 1905.7.3.

9) 한창연은 이제마가 30세 무렵 자신의 사상을 정초하는데 영향을 준 한석지(韓錫地)의 『명선록』(明善錄)을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필사하도록 부탁한 제자로 스승의 사후 『동의수세보원』의 증보판을 낸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제마의 친척이었는데, 한창연은 이복 누이동생의 아들이었다. 이제마의 의학을 널리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씨 집안 인물들로 한창연, 한목연(韓穆淵), 한직연(韓稷淵), 한효연, 한교연 등을 들 수 있다.

이 개설한 사상창제국은 사상의학 혹은 이제마의학을 내건 최초의 약국 — 서울로 한정한다면 — 일 것이다. 그런데 사상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마를 내걸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약국운영은 결국 이제마의 학설을 알리기 위한 장치로써 마련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효연처럼 약국을 차린 경우 이외에 제자들의 활동도 신문지면에서 발견된다.

前參奉李愚璿氏의 設立한 孤兒학院은 顛連無告한 兒童을 募集한 이 已過百餘名인디 衣食教養을 一無遺憾케 하고 又以其疾憂로 儒家名醫李濟馬氏의 傳鉢門人河榮達氏를 請延하여 一般孤兒輩衛生上에 大段注意한 다더라¹⁰⁾

咸鏡道에 高明한 前高原郡守李濟馬氏弟子前奉事韓穆淵氏가 遊覽次上京하여 廣濟蒼生之意로 其先生의 四象法太陽太陰少陽少陰으로 觀形察色하여 辨証用藥에 無不見効한 뒤 酬勞는 固却不受하니 氏의 慈善心を 人皆稱頌한 다더라¹¹⁾

상단의 기사에서 이제마는 유가의 명의로 소개되며, 하단의 기사에서는 함경도에서 고명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자인 하영규(河榮達)와 한목연이 고아들 진료와 자선진료를 하였다고도 한다. 아마도 이는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기도 했겠지만, 스승과 사상의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한목연과 관련된 기사가 더 보인다. 유종인(劉寅鍾)이라는 사람이 인후병(咽喉病)으로 기도가 막히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목연에게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사상법(四象法)의 효과를 보아 사례하였으나, 한목연은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도 나온다.¹²⁾

10) 「活孤婆心」, 『大韓每日申報』 1906.5.30.

11) 「韓醫慈善」, 『大韓每日申報』 1906.10.12.

유인종이 감사를 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이 광고를 한목연이 주도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겨우 몇 차례 등장하는 신문 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마 제자들이 스승을 현창하고 평판을 얻기 위해 상당히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이후 다른 기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대신 그들의 활동이 드러나는 대목은 『동의수세보원』의 간행이었다.¹³⁾ 그 간행은 1901년 초판이 나온 뒤, 1910년대에 경성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이루어졌다. 몇 부나 간행되고 판매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차례 간행된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판본	발행일	발행자	발행지	발행소
초판	1901. 6.	栗洞契	咸興	栗洞契
재판	1911. 9.	崔冕甲商店	咸興	高敬必藥舖, 金重瑞商店, 李增模商店
3판	1913. 7.	金容俊	京城	普及書館
4판	1914. 2.	金容俊	京城	普及書館
5판	1921. 7.	金容俊	京城	博文書館
6판	1936.12.	韓秉武 등	北平	四象辨證醫學研究社
7판	1941. 4.	保元契	咸興	金重瑞方

2.2. 좌절된 자리매김

일제의 의료정책이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동양의학 나아가서 조선의학을 강조하려는 한의계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위를

12) 『皇城新聞』 1906.10.23.

13) 이기복(2014), p. 58.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력이 의사학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조선의 의학이 오랜 유래를 갖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은 의학계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작업이었다. 그 단초는 『한방의약계』(漢方醫藥界, 1914)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14년 1월에 발간된 현존하는 최초의 한의학 학술잡지인 『한방의약계』 2호를 살펴보면 한의학계에서 바라보는 전통의학의 계보가 그대로 노출된다.

『한방의약계』가 간행된 계기는 일제 강점과 함께 의생으로의 지위가 격하된 전통의료인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의사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이전에 활동하였던 전통의료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만 의생면허를 주는 방식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의약계』는 전통의료인들의 단체인 조선의생회(朝鮮醫生會)의 기관지이면서, 동시에 전통의학계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런 『한방의약계』의 사실상 첫 호에,¹⁴⁾ 목차를 지나 「찬」(贊)의 형식과 함께 전통 의학을 대표하는 네 명 인물의 삽화가 그려져 있다. 각각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장경악(張景岳)이다. 복희와 신농, 황제야 본래 전통의학의 창시자로 추존되는 인물들이지만, 장경악은 성격이 다르다. 그는 명대 후기의 의사인 장개빈(張介賓)으로, 조선후기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일 뿐이다.

이는 그들이 내걸은 명칭이 한방(漢方)인한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의 의학적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방의약계』는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의학자들 전기인 「양평군소전」(陽平君小傳),¹⁵⁾ 「정

14) 『한방의약계』 1호는 1913년 10월에 간행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간단한 팜플렛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실상 첫호는 『한방의약계』 2호라고 할 수 있다[맹용재 외(2006),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p. 479].

15) 金聲根(1914), 「陽平君小傳」, 『漢方醫藥界』, p. 36.

북창선생전(鄭北窓先生傳),¹⁶⁾ 「지전선생소전(芝田先生小傳)을 마련하여, 그들의 행적을 현양함으로써 조선의학의 우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양평군은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許浚)을 말하며, 정북창은 『동의보감』 편술에 참여하였던 유의 정작(鄭碯)의 형인 정렴(鄭璣)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렴은 조선의 도가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렇다면 지전선생은 누구인가. 그는 참봉을 지낸 이신규(李臣奎 또는 李身達)인데, 조선의생회 간사장인 이학호(李鶴浩)가 바로 그의 종손이었다.¹⁷⁾ 전기를 살펴보면, 이신규는 참봉을 지낸 이동욱(李東郁)의 손자이며 한국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李承薰)의 아들이었다. 이승훈이 1801년 순교하자, 그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여 의학에 종사하였던 모양이다.

前叅奉李臣奎之號는芝田이오籍은平昌이니前叅判李東郁之孫也라自幼素貧이나天性이恢廓호고聰明智慧가卓越凡人호야百家六藝之書를一覽便誦호야文章道德이冠于當世러라至于醫學호야는素問之運氣와叔和之脉訣를無念不靈호고無境不澈호야人道之生機와天道之化機가瞭然在中호니一世가莫不敬誦호야稱爲德醫러니不幸罹于辛酉禍網이라¹⁸⁾

그가 순원왕후의 병을 치료한 덕분에 1856년 이승훈의 대역죄가 신원되었지만, 그 자신 역시 순교를 면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이신규와 손자인 이재의(李在誼)는 1866년에, 증손 연구(蓮龜)·균구(筠龜)는 1871년에 순교하여 4대에 걸쳐 순교자를 냈다.

이처럼 조선시대 활동했던 유명한 의학자를 드러내는 것은 조선의 의

16) 朝鮮醫生會(1914), 「鄭北窓先生傳」, 『漢方醫藥界』, pp. 36-38.

17) 朝鮮醫生會(1914), 『漢方醫藥界』, p. 8.

18) 朝鮮醫生會(1914), 「芝田先生小傳」, 『漢方醫藥界』, p. 38.

학 — 즉 한의학 — 의 유효성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의학의 자긍심과 권위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인물 발굴 혹은 새로운 사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알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허준이었다.

그 경향은 『한방의약계』보다 1년여 늦게 창간된 『의약월보』(醫藥月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한방의약계』는 지방에까지 우편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경성에서 활동하는 의학자들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약월보』는 평양의약강습회가 발행처였기 때문에, 주로 서북지역에 파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색을 더욱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한방의약계』가 주로 한의계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에, 『의약월보』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평양지역의 의사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도 있다. 즉 『의약월보』가 단순히 한의학을 강조하기 위한 잡지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의 전기가 다시 언급되었다. 그 전기를 쓴 인물은 ‘창오생’(滄吾生)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바로 『한방의약계』의 주필이며¹⁹⁾ 「漢方醫藥의改良」이라는 논설을 쓴 최재학(崔在鶴)이었다.

최재학이 『한방의약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월보』에서도 같은 기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근에 의해서 서술된 전기보다는 약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의보감』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성근이나 최재학이 주목한 것은 『동의보감』이 중국에까지 유명할 정도의 의서였다는 사실이었다.

19) 朝鮮醫生會(1914), 『漢方醫藥界』, p. 43.

又聞支那人云朝鮮有三大書，許氏寶鑑、其一也²⁰⁾

仍名曰東醫寶鑑이라 ㅎ야刊行于世 ㅎ니凡二十五卷이라 事聞支那의
上自王公으로 下至民庶 | 莫不尊尙而廣付劖劓 ㅎ야今其書彌滿于天下
也러라²¹⁾

즉 조선에서 자랑할 만한 3대 서적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국왕으로부터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존송되어 널리 간행되어 지금은 천하 — 중국 — 전역에 널리 퍼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 의학계의 동향이 상당히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여러 차례 중국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조선 의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동의보감』 만큼의 파급력을 갖는 의서 혹은 이론이 필요했지만, 『동의보감』에 필적하는 대상을 찾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준에 이어 인물소개가 이어지는데, 앞서 『한방의약계』에서 소개된 정림의 내용을 전제한 것이었다. 몇몇 글자의 출입이 있지만, 기사의 맨 끝에 기자의 간단한 논평만이 다를 뿐이다.²²⁾

인물을 통한 한의학의 의사학적 연구를 더욱 촉발시킨 것은 『동서의학보』(東西醫學報, 1916-1917)였다. 『동서의학보』를 펴낸 공인의학강습소에서는 창간호의 서두에 「本報의紹介」라는 글을 통해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언인지를 드러낸다.

我朝鮮의 醫學이 自來高級의 待遇를 未受 ㅎ은 自反을 不暇 ㅎ을 지라 世人이 朝鮮醫學의 歷史를 問 ㅎ면 醫學大家가 世 不 乏 絶이로되 茫然不知 ㅎ니 其原因을 溯考 ㅎ면 一則 時代의 風潮가 醫業을 賤技로 歸 ㅎ이오 一則 醫士 其人이 醫學에 專攻이 有 ㅎ니 醫史系統을 繼續 ㅎ著書가 乏

20) 金聲根(1914), 「陽平君小傳」, 『漢方醫藥界』, p.36.

21) 滄吾生(1914), 「陽平君小傳」, 『醫藥月報』 1 (3), p. 62.

22) 平壤醫藥講習會(1914), 「鄭北窓先生傳」, 『醫藥月報』 1 (4).

흠이오一則一技一能을我或知之호면惟恐人知호야稱爲秘方에不傳其子호니今日醫學은宜乎世人이看之以無源之水와無根之木이誠無恠也로다²³⁾

그들은 한의학의 몰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역사의 부재를 꼽았다. 그래서 잡지를 통하여 의약에 관한 역사자료를 수집한다고 광고하였고, 그 대상이 되는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11가지 사항을 알렸다.²⁴⁾ 그리고 그 자료가 해당 잡지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후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서의학보』에서 추진했던 노력들은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다. 동양의학을 더욱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 서양의학의 개괄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의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양의 새로운 학문들 전반을 이해하는 것, 의학사적 이해를 통해 동양 내지 조선의학의 자긍심을 찾는 것 등이었다. 물론 이전의 잡지들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체계화되었으며, 특히 동양의학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제시된 점이다. 이 가운데 의학사적 이해를 넓히는 일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전반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다.²⁵⁾

그런데 이러한 한의계의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회고라는 방식으로 권위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 23) 京城公認醫學講習所(1916), 『東西醫學報』 1, p. 1.
- 24) 京城公認醫學講習所(1916), 「本報의紹介」, 『東西醫學報』 1, “一 何年代 醫士何人, 一 醫書著述호冊名及冊子卷數, 一 外國에서朝鮮醫師를招聘호事, 一 朝鮮에서外國醫師를延聘호事, 一 醫藥을不知호야疾病이鬼神의侵責이라호든時代, 一 醫藥을始用호든事實과時代, 一 病名을發明호든事實과時代, 一 外科에針破·付缸·挿心等發明호든事實及時代, 一 前에無호든病이發生된時代(如高麗時黃鼠隨雨以下其時人多病之類), 一 製藥을發明호든事實(如仁蔘을蒸爲紅蔘之類), 一 某病에某藥을發明호든時代及事實”.
- 25) 京城公認醫學講習所(1916), 「東西醫史 — 醫藥의起始」 및 「東西醫史 — 東西醫學의創始」, 『東西醫學報』 1.

황제와 신농으로부터 시작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계보에서, 이러한 태도는 항상 존재해왔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의학으로 한의학을 상고하고 주장하려고 할 때에도 이는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여전히 허준과 정림이 주요 인물이었으며, 예외라고 한다면 『한방의약계』에서 소개된 이신규 정도였다. 조선을 대표하는 의원이었던 허준이야 그렇다지만, 정림이나 이신규의 의학적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권위가 온전히 의학, 의술적 차원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을 범주화 한다면 허준과 이신규는 국왕과 왕실을 치료한 인물들이며, 정림은 유학(도가) 계열에서 추송되는 인물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이제마는 등장하지 않는다. 1913년 당시까지 『동의수세보원』은 3차례 간행되었고, 그중 한번은 경성에서 출판되었다. 그럼에도 한의계의 잡지에서는 사립의학강습소의 강사인姜원희(姜元熙)가 「人有四象說」이라는 총 20여줄 안팎의 짧은 글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사상의학의 개략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마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肺大肝小者는太陽人이오肝大肺小者는太陰人이오脾大腎小者는少陽人이오腎小脾大者는少陰人이니是謂四象이라臟部之大小不同이如此하니用藥이豈無差異리오四象을分히야藥料를投히면病無不愈호니此는李濟馬先生의前聖에未發을發호者니라²⁶⁾

그런데 『한방의약계』의 목차를 살펴보면, 사상의학을 소개하는 이 논설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가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령 상한론, 내상론, 부인론 등은 ‘론’(論)으로 명명되지만, 사상은 ‘生理衛生의畧說’의 예와 같이 ‘설’ 불린다. 그러나 2년 뒤 발간된 『동의보감』(東醫報鑑)에서는 「동의학강술」이라는 편제 아래, 인신기소천지(人身其小天地), 허심합도(虛心合道), 음양론(陰陽論), 사

26) 姜元熙(1914), 「人有四象說」, 『漢方醫藥界』, p. 33.

상론(四象論), 오행론(五行論), 인지수요설(人之壽夭說) 순으로 글이 실린다. 이제마 의학의 독자성이 부각되지는 못했지만,²⁷⁾ 『한방의약계』에서 ‘설’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주던 것에 비해서는 ‘논’의 일부로 상세하게 이론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미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관련해서는 큰 의문이 발생한다. 『한방의약계』의 발행처인 조선의생회의 회원명부를 보면 글을 쓴 강원희는 편술원(編述員)이고, 평의원(評議員) 가운데 한목연이 포함되어 있다. 한목연은 이제마의 제자임이 분명한데도, 사상의 학설을 쓴 사람은 강원희이다. 이런 사정은 『한방의약계』를 계승한 전선의회(全鮮醫會)의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의보감』을 간행한 전선의회 회원명부를 보면 조선의생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다시 소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목연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신 『한방의약계』에 글을 썼던 강원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에 실린 사상론 역시 강원희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제마 사후 1910년대 중반까지 제자들의 노력과 4차례에 걸친 『동의수세보원』 간행에도 불구하고, 이제마에 대한 한의학계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의 학설도 그저 음양론과 오행론 가운데 위치하는 정도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개의 글도 이제마의 제자가 저술한 것도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밝혀 줄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10~20년대까지 한의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구성을 보면 여전히 내의 혹은 전의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던 까닭에 이제마를 평가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허준과

27) 기본적으로 사상론은 체질에 근간하여 의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음양오행론, 특히 오행론과는 궤를 아예 달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기의 잡지에서는 음양론과 오행론 사이에 위치하도록 장치를 두었다. 이는 사상론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음양론의 확대·오행론의 축소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신규는 왕실치료를 맡았던 의사들이었지만, 이제마는 익숙하지 않은 의학론을 주장한 변방의 의학자였을 것이다.

3. 사상의학의 ‘신’ 권위 획득

3.1. 이제마의 재등장

회고적 인물들을 재등장시켜 한의계의 권위를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었을까? 세균설에 근거한 위생의 강화와 항생제의 발견·보급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 거대병원의 등장 등에서 보이는 서양의학의 성과를 극복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써 한의학의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것의 완성은 이제마와 사상의학의 소환으로 전개되었다.

그 단초는 19세기 최후반에 간행된 『중서회통의경정의』(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찾아졌다. 청나라 말기 의사인 당종해(唐宗海)가 편찬한 이 의서는 서양 이론을 동원하여 중의학을 다시 해석하고 중의학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었다.²⁸⁾ 이것이 20여년이 지나서 1918년 창간된 『조선의학계』(朝鮮醫學界)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학계』는 서양 의학란과 동양 의학란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었다. 서양의학에서는 해부학을 비롯하여 생리학, 병리학 등을 차례로 연재하였고, 동양의학에서는 당종해의 『중서회통의경정의』를 연재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종해의 『혈증론』(血證論)이 게재되었다.

앞서 한의계 잡지에서 한의학 혹은 동양의학은 대체로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전적 의서를 중심으로 연재하고 있었던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

28) 李經緯·張志斌(2006), 『中醫學思想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pp. 665-668.

이들이 굳이 당중해를 왜 이용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허준이든, 정렘이든, 아니면 『동의보감』이든, 전통적인 서술만으로는 이제 한의학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중해가 서양의학과 과학의 수용으로 전통의학의 권위를 새롭게 한 것처럼, 조선에서도 그와 같은 인물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마였다.

1920년대 나온 신문의 한 기사는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경성에 괴질이 발생한 이후로는 일반의 신경이 매우 흥분되어 별 별가지 희비극이 자못 많았으며 ... 별별가지 야단스러운 현상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엾은 사람은 시넨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한 방 의사들의 앓을 수도 없고 설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곤경이라 할 만하니 ...²⁹⁾

부제가 ‘뱃그르는 경관과 인민의 위협, 안으로는 약한침도 안팔려서 참으로 가엾은 요사이 한약계’라고 달린 이 기사는 매우 자극적이다. 그에 따르면 한의계는 결국 ‘새 시대’의 ‘새 공기를’ 미처 접하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뿐이며, 괴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땅한 약을 처방하지도 못하여 곤궁을 면치 못하는 처지일 뿐이다. 양의사들은 백신이라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는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국의 집중관리로 인해 어려움만 겪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한의계의 어려움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1924년 1월부터 1925년 9월까지 『동서의학연구회월보』(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도은규(都殷珪)가 「四象醫學의 解説」이라는 글을 연재한다.³⁰⁾ 그는 글의 첫머리에서

29) 「怪疾의 餘波로 外寤內艱의 漢醫界」, 『동아일보』 1920.8.20.

30) 『東西醫學研究會月報』 1호(1924.1), 2호(1924.2), 4호(1924.3), 6호(1924.9), 『東西

“東醫學의 壽世保元은 距今 三十年前에 李東武先師가 創述한 太少陰陽으로 된 四象醫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는데,³¹⁾ 신동원의 지적처럼 당시 한의계를 주도하던 동서의학연구회서 이 의학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동서의학연구회월보』 2호에서부터 4호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된 도은규의 글은 이전과 다르게 『동의수세보원』을 근거로 보다 상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그리고 사상의학에 대한 세간의 평판과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사상의학의, 필자) 實理는 參差의 別이 無하되 任病解釋의 心은 明暗의 差가 不無하야 其人其病에 其藥으로 多年經驗이 確有하고 此醫學은 純全한 性理道德으로 말미암아 原素와 主體가 됨으로 그 實理를 概舉하는 바이라³²⁾

아울러 도은규는 앞서 ‘사상’, ‘사상설’, ‘사상법’ 등으로 불리던 이제마의 의학을 ‘사상의학’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상의학’의 술어가 도은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이제마의 의학을 사상의학으로 부르는 전통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 원지상이 『동의사상신편』(東醫四象新編)이라는 책 제목 안에 ‘사상’을 명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마 의학이 사상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것과 함께 이제마에 대한 평가가 새로이 형성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세속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1920년대 중반으로 보인다. 1925년 『개벽』에는 조선 사람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로 이제마의 사상설이 들어지기도 한다.

醫學研究會月報』 혁신 제1호(1925.10) 등에 이 글이 연재되었다.

31) 都殷珪(1924), 「四象醫學의 解說」, 『東西醫學研究會月報』 1, p. 26.

32) 都殷珪(1924), 『東西醫學研究會月報』 2, p. 26.

지금 조선 사람은 자량이 없다. 제 아무리 哲學을 공부하였다 하자. 그리하기로 조선사람의 속정을 캐어 본적도 업는 哲學者가 병신 바보 哲學者가 아니냐. 제 아무리 博物學者라고 하자. 그리하기로 조선 식물의 무엇이 잇는 줄도 모르고 식물 이름 하나 조선말로 記憶하는 것이 업는 學者가 무엇이 그리 쫓다 우냐. … 高句麗의 벽화나 李朝의 測雨器나 高麗의 磁器, 慶州의 石窟庵이며 갖잡게 李東武의 四象說 등을 낫낫이 들어 자량을 채운다 하면 실로 적지 아니하려니와 이보다도 더 큰 자량이 우리에게 잇다 하면 稀罕할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고.³³⁾

권덕규는 이 글에서 현재 조선의 자량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조선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양의 학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는다. 이어 조선에서 자량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和蘭의 코쓰터나 獨逸의 꾸텐베르-호보다 앞서기 수백년 전” 활자를 만들었던 것과 함께, 가깝게는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말한다. 그가 조선의 자량거리로 주장하려는 것은 한글(人)이었기 때문에, 사상의학이 어째서 자량할 거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일례로 들어지고 함께 거론된 대상들이 측우기나 거북선, 석굴암처럼 이미 잘 알아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사상의학의 평가가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마나 사상의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20년대 끝 무렵 『별건곤』이라는 잡지에서는 이야기가 매우 풍부해진다.

선생은 한학의 古學派로서 정주학설을 극히 반대하였다. 그럼으로 항상 제자들의게 유가경전을 가르치되 정주의 집주인 章下註는

33) 권덕규(1925), 「마침내 조선 사람이 자량이여야 한다」, 『개벽』 61, p. 19.

가르치지 안이하고 『朱子出而儒教亡』이라는 말을 늘 하였다고 한다. … 유교의 사상을 근본부터 부인하는 금일 가트면 몰으나 그 때에 잇서서는 程來之學이라면 누가 토 한나 못 곳치든 때에 이와 가티 대담하게 세상을 망한 자는 朱子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선생의 독특한 사상과 탁월한 견식이 잇섯든 것은 가히 추측할 수 있다. … 선생의 독창적인 사상학은 수천 년 전래의 한의학에 대한 일대 혁명으로 그것이 壽世保元이란 책자로서 지금 세상에 유행할 뿐 아니라 의학계의 신연구와 신시험을 니르키게 된 것은 선생을 조선 發明의 一元朝로 헤이지 안홀 수 업다.³⁴⁾

여기서 이제마를 고학파로 비정하여 주자학을 강렬히 비판하였으며, 그의 의학은 한의학계의 일대 ‘혁명’이며 ‘신연구 경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치켜세운다. 『별건곤』이라는 잡지의 특성상 온전히 학술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는 매우 자극적이다. 그런데 『별건곤』의 술어들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제마가 주자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를 일본의 ‘고학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사정을 밝혀주는 자료를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의학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문이나 잡지 등 매체들에 의해 이제마가 소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치료행위를 통해서 평판이 저변에서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1930년대 동서의학논쟁 — 혹은 한의학부흥운동 — 당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 의학적 의미를 강조하였던 이을호(李乙浩)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을호가 사상의학을 접하게 된 것은 그가 1923년 영광중학원 2년을 마치고 폐교로 말미암아 중앙고보에 편입하였을

34) 金秉濟(1929), 「痛快無雙奇人篇, 四象醫學의 元祖, 近代奇人 李濟馬先生」, 『별건곤』 22호.

무렵이다. 중앙고보 재학시절 폐결핵으로 고생하였던 그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최승달을 만나게 된다.

최승달은 1888년 황해도 웅진에서 출생하였으며, 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독립운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생활을 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마의 8대 제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다른 7명의 제자가 북쪽에서 활동한 것과 다르게 최승달만 경성에서 약국을 열고 있었다.³⁵⁾ 이때 이을호가 최승달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나아가 『동의수세보원』을 사사받기에 이른다. 이후 이을호는 1927년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1년간 사상의학적 자가 치료를 실행한 뒤, 1930년 스승의 권유에 따라 경성약전에 입학하였다고 한다.³⁶⁾ 그리고 재학 중에도 사상의학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1930년대 동서의학논쟁을 주도하고 ‘사상의학’을 소개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1920년대 중반 이제마는 세상에 다시 호출되었고, 그의 의학은 이제 ‘사상의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호사가들에게 그와 그의 의학은 ‘고학파’, ‘반주자학자’, ‘의학의 혁명’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신채호와 박은식이 국학을 주창한 이래 1920년대 조선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최남선과 같은 인물들의 사회적 영향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진정한 의미로써 학술 — 특히 의학 분류 — 적인 차원에서의 재조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5) 「조용헌 살롱 — 李乙浩 선생을 추억하며」, 『조선일보』 2017.12.11. 여기서는 최승달이 화평당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수동약국을 운영하였다는 다른 연구도 있다.

36) 정근식(2015), 「일제하 동서의학논쟁과 이을호」, 『현암 이을호 전서 27: 현암 이을호 연구』, 다산학연구원, p. 130.

37)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연구에 대해서는 이영화(2004), 「1920년대 문화주의와 최남선의 조선학운동」, 『한국학연구』 1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태훈(2018),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연구와 실천적 한계」, 『사학연구』 131, 한국사학회 등을 참조.

3.2. ‘신’ 고전으로의 탄생

1930년대 사상의학이 새롭게 각광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시작은 1934년 2월 16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기무(張基茂)의 「한방 의학의 부흥책」으로 촉발된 동서의학논쟁 — 한의학부흥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근양(鄭槿陽)이 장기무의 논의를 반박하는 「한방의학 부흥문제에 대한 제언」을 기고하고, 정근양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이을호의 「중합의학 수립의 전제」 이래, 장기무·조헌영(趙憲泳)·이을호·정근양이 계속 글을 연재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논의는 한의학을 옹호·변론하는 입장과 배척하는 입장으로 두 개의 진영이 나뉘어 대립한 상황이어서, 사상의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한의학부흥운동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사회에 이미 갈 길을 잃어버린 한의계가 한의사(의생)가 아닌 비판적 지식인 혹은 학자들로부터 지지 혹은 명확한 반대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상의학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그 핵심에 이을호가 있었다.

이을호는 동서의학논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인 1936년 4월부터 『조선일보』 지면에서 「사상의학설 비판」이라는 글을 차례로 연재하기 시작한다.³⁸⁾ 한 달이 넘게 연재된 이 시리즈에서 이을호는 사상의학의 면모를 새롭게 일깨우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 저술이 간행됨으로 말미암아 한의학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수정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동양의학사상 커다란 일종의 의학혁명이

38) 이 연재는 「사상의학설 비판.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1」(『조선일보』 1936.4.21)에서 시작해서 「사상의학 비판(속) —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8)」(『조선일보』 1936.5.29)까지 총 22개의 주제로 기사화되었다. 이을호 사후, 『현암 이을호 전서 19: 의학론』(다산학연구원 편, 2015)에 「사상의학설 비판 —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로 묶여서 다시 간행되었다.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마 씨의 학설을 비판하는 자의 관점을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한의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진 것만은 뉘라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³⁹⁾

이을호는 이제마와 『동의수세보원』의 등장이 동양의학사에서 혁명적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당시의 평가가 ‘선구자’ 아니면 동양의학의 ‘이단아’로 크게 갈려 대립하고 있음도 밝힌다. 이 중 이을호의 입장은 단연 선구자라는 편에서 있으며, 사상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의학사상의 위치, 어원, 사상의학 성립의 기본 원칙, 사상인의 분류와 장부의 관계, 사상에 따른 약물의 사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하는 글을 계속해서 실었다. 이을호의 글은 최초의 본격적인 사상의학 연구이며 이후 사상의학 이해에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을호는 이제마의 전통의학에 대한 태도나 의학의 성격을 근거로, 사상의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째로 이제마는 학자의 기본적인 태도에 따라 고인의 학설을 직접 재검토하였다. 둘째, 구설을 맹종하지도 않았지만, 존중도 잊지는 않았다. 셋째로 ‘고방파(古方派)나 후방파(後方派)와 같은 대립적 입장’을 갖는 당파적 의견이 없었다. 즉 사상의학은 자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입론을 통해 이전 학설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그 결과 의학의 패러다임을 ‘병세집증(病勢執症)에서 ‘인물변증’(人物辨證)으로 바꾸었다. 넷째로 구의학(舊醫學)이 외인(外因)을 중시하였다면, 사상의학은 내인(內因), 그 중에서도 내재적 정신작용의 중요성을 고조하였다. 다섯째로 의학의 특권화를 반대하고, 민중의술로서 통속화(通俗化)하기를 기대하였다.⁴⁰⁾

그런데 이을호의 이 주장은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서 일부 소개되었던

39) 『현암 이을호 전서 19: 의학론』, p. 94.

40) 『현암 이을호 전서 19: 의학론』, pp. 95-101.

것이였다. 1933년 경성약전 학생이었던 이을호는 경성약전 『교우회지』에 “사상의학은 체질의학”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의학계의 담론에서는 체질과 그에 따른 질병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매우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하였던 것은 4개로 구성된 혈액형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체질론의 결정적인 증거로 이해되었다.⁴¹⁾ 사상의학의 체질론을 혈액형과 연계시키려는 이을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이를 근거로 사상의학이 “오랜 동양의학의 결실이자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학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⁴²⁾

그렇다면 사상의학에 대한 이을호의 분석과 주장은 과연 어떠한 학문적 배경 하에서 가능하였을까? 이을호가 사상의학을 접하게 된 계기는 스승이었던 최승돈(최승달)과의 만남이었고, 그 위에 경성약전에서의 서양 약물학이 더해졌다. 또한 경성 약전시절 읽었던 유모토 규신(湯本求真)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한방의학회(日本漢方醫學會)에서 간행하는 『한방과 한약(漢方と漢藥)』 등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한방과 한약』의 창간호가 1934년 5월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1927년에 간행된 유모토 규신의 『황한의학』(皇漢醫學) 내지는 1910년 와다 케이쥬로(和田啓十郎)가 저술한 『의계지철추』(醫界之鐵椎)까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계지철추』는 동서의학논쟁을 촉발한 장기무가 1915년 『동서의학신론』으로 번역·간행한 바도 있었다.⁴³⁾

이을호는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한학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경성약전에서의 서양 약물학과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전통의학 재발견의 논의들(와다 케이쥬로는 양의

41) Shin, Dongwon (2006), p. 155. 신동원이 “사상의학의 체질론”이 서양의 약학 전공자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 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42) 이을호(1933), 「사상론」, 『교우회지』 3, p. 7.

43) 『의계지철추』가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에 미친 영향은 자못 크다. 중국에서도 1921년 정복유(丁福有)에 의해서 번역·소개되었다.

사이며, 유모토 규신은 한의사이다.)이 습합되었다. 이런 배경이 사상의학을 체질의학으로 단정하고, 1930년대를 풍미한 서양 체질론과의 비교 검토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저술된 사상의학에 관한 소논문은 동서의학논쟁 당시 전통한의학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논자들이 구성된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研究會)가 간행한 『동양의약』(東洋醫藥)에 게재된다.⁴⁴⁾

『동양의약』에 참여하여 글을 쓴 주요 인물들은 장기무·김영훈·조현영·이을호 등이었다. 이들은 동서의학논쟁에서 한방의학의 부흥을 주창하고 한의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글들을 다수 발표한 논자들이다. 창간호에서 조현영은 「李濟馬四象醫論抄錄」을 써서, 사상의학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옹호하였다.⁴⁵⁾ 그 뒤를 이어 이을호는 「李濟馬「四象醫學」論」이나 「四象醫學의 研究」 등에서 “사상의학은 동양의학의 정화요, 세계의학사상 의문의 열쇠”였다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다.⁴⁶⁾ 이후 『동양의약』이 3호까지만 발행되고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을호의 사상의학 평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36년에 이르러 이을호는 다시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사상의학을 소개하는 글들을 연재한다.

1930년대 초중반 이을호에 의한 이제마와 사상의학의 연구는 매우 특별한 양상이었다. 왜냐하면 이전, 이후로도 이제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저 이을호라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상의학의 재발견과 관련하여 1930

44) 李乙浩(1935), 「李濟馬「四象醫學」論」, 『東洋醫藥』 2.

45) 2호에서는 「四象醫論抄錄」으로 게재된다.

46) 李乙浩(1935), 「李濟馬「四象醫學」論」, 『東洋醫藥』 2, p. 34에서 조현영이 이을호에게 이 글을 게재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전한다. 즉 사상의학의 한의학적 완결성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 이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년대에 사회·문화적으로 전개되었던 ‘조선학운동’(朝鮮學運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의 지성계가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으로 분화되는 가운데, 일제의 민족 전통·인식 왜곡에 대응하여 조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결과 1933년 6월 백남운 등을 중심으로 조선 경제학회가 창립되고, 1934년 5월에는 이병도 주도로 진단학회(震檀學會)가 창립되어 기관지 『진단학보』(震檀學報)가 발간되었다. 무엇보다 1934년 9월 정인보·안재홍·문일평 등을 중심으로 ‘다산서거99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거질의 『여유당전서』가 연차적으로 간행된다. 여기에 언론기관들이 학술강연회를 열고 여러 논평의 글을 게재하면서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재조명이 시도되었다.⁴⁷⁾

이때 조선학운동의 맥락 가운데 하나는 ‘조선의 탁월한 위인’을 재발견해서 민족 독립의 ‘계몽’ ‘실천’적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⁴⁸⁾ 그런데 조선의 실학과 정약용을 전통 한의학에 대입하면, 사상의학과 이제마로 등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929년 김병제에 의해 이제마가 고학파의 인물로 비견되는 상황은 바로 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⁴⁹⁾ 그러나 한의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나 기관지가 계속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마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이을호의 연구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돌출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제마의 재등장 과정을 이제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보자. 앞서 1910년대까지 이제마와 그의 의학은 그저 주목

47) 이상 조선학운동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는 백승철(2008), 「1930년대 ‘朝鮮學運動’의 전개와 民族意識·近代觀」, 『역사와실학』 36 참조.

48) 최재목(2012), 「1930년대 조선학(朝鮮學) 운동과 ‘실학자(實學者) 정다산(丁茶山)’의 재발견」, 『다산과 현대』 45, p. 91. 그 사례로 박은식의 왕양명 재발견, 그리고 조선학 운동에서의 다산의 발견이 있다고 말한다.

49) 이와 같은 이유로 사상의학의 자리매김이 철저히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신동원은 연구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할 만한 인물·이론으로 잠시 소개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의생(한의사)으로 구성된 단체나 그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마와 『동의수세보원』의 평가는 박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사상의학은 새로운 평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정화이며, 어쩌면 이을호가 기대한 ‘세계 의학계를 경천동지할’ 수 있는 체질의학으로 평가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전환은 평가자의 교체와 그들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가능하였다. 1910년대 전통의학계의 담론을 이끄는 인물들은 여전히 전통 의사(특히 전의를 지낸 의료인)들이었다. 그들에게 이제마는 그저 함경도 벽지에서 나와 음양과 오행론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상론을 제창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한의계의 논의를 이끌어간 인물들은 그들과 달랐다. 김영훈과 같은 저명한 한의사도 있었지만, 장기무는 의학교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전통의학에 관심을 갖는 인물이었으며, 이을호는 사상의학과 함께 경성약전에서 서양 약물학을 학업하였다. 또 조현영은 와세다대학 영문과 졸업 이후 독학으로 전통 의학을 학습한 인물이었다.⁵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는 이을호나 조현영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사로서 임상적 성과보다는 한의학의 논의를 근대적인 학술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⁵¹⁾ 그들은 서양근대 학문에 기초를 둔 전문(대학)교육을 통해서 의학적 담론을 지배하고, 조선의 전통의학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사상의학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발견한 사상의학을 적어도 학술동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논의의

50) 「朝鮮理療會創立 — 民衆醫療研究機關」, 『동아일보』 1932.5.20. 이 기사에 따르면 조현영이 수년간 일본과 조선에서 민중의료법을 연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재일유학 시기에 일본에서 한방의학의 부흥을 주장하였던 논자들(와다나 유히토 등)의 저술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현영이 동서의학논쟁 시에 사용했던 논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51) 이외에 당시 한의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영훈의 지지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장을 확대시켰고,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사상의학은 한의학을 대표하는 체질의학으로, 대중의 뇌리에 단단히 자리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이제마와 사상의학은 한국 전통의학의 기린아이며, 독창적인 의학사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다. 조선 최말기에 펴낸 『동의수세보원』은 그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평가를 처음부터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1910년대 처음으로 조직된 한의사 단체인 조선의생회의 기관지였던 『한방의약계』에 소개된 이제마의 의학은 사상설이었을 뿐이다. 이후 사상론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경성의 한의학계에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후 1920년대 중반 이후 이제마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확장시킨 것은 1930년대 중반 동서의학논쟁의 주요 논자였던 이을호였다. 이을호는 체질의학으로 사상의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상의학의 사상적·의학적·약물학적 분석 기사들을 신문 지면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이제마는 조선을 대표하는 의인 가운데 한명이 되었으며, 그의 저서 『동의수세보원』은 허준의 『동의보감』과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 — 다른 말로 한의학의 신고전의 형성과정 — 은 봉건적·신분적 규범에 따른 의학의 권위형성 방식이 학문적 정합성과 대중적 인식도로 점차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마와 『동의수세보원』을 둘러싼 논의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상의학에 대한 강조가 민족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기실 이제마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한 인물들의 학문적 배경 — 특히 의학 —

은 민족주의적 시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기무를 비롯해 조현영, 이을호의 학문범위가 넓었던 만큼, 동시에 일본에서의 학문 풍토·유행 등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의학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중의 층위 위에서 존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大韓每日申報』.
『東西醫學報』.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亞日報』.
『東洋醫藥』.
『東醫壽世保元』.
『醫藥月報』.
『漢方醫藥界』.
『皇城新聞』.
다산학연구원 편(2015), 『현암 이을호 전서』.

【논 저】

- 박윤재(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신동원(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여인석 외(2008),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아카넷.
백승철(2008), 「1930년대 ‘朝鮮學運動’의 전개와 民族意識·近代觀」, 『역사와실학』 36.
Shin Dongwon (2006), “Nationalistic Acceptance of Sasang Medicin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 (2).
이기복(2014),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 동아시아 의학 전통의 재구성과 “천인생명 장부의학”의 탄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을호(1933), 「사상론」, 『교우회지』 3.
정근식(2015), 「일제하 동서의학논쟁과 이을호」, 『현암 이을호 전서 27: 현암 이을호 연구』, 다산학연구원.
최재목(2012), 「1930년대 조선학(朝鮮學) 운동과 ‘실학자(實學者) 정다산(丁茶山)’의 재발견」, 『다산과 현대』 45.

원고 접수일: 2019년 7월 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11일

ABSTRACT

The Birth of Traditional Medicine's 'New Classic'
in the 20th Century:

Lee Jema (李濟馬)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Kim, Seong Su*

Lee Jema and hi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 brainchil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praised highly as a unique medical ideology. His book *Donguisusebowon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East Medicine, 東醫壽世保元)*,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not regarded as highly as he had expected in the beginning. His medical approach was introduced as Sasang philosophy in *Hanbangeuiyakgye (漢方醫藥界)*, an institutional journal for the Association of Joseon Physicians, the first association for doctors of oriental medicine organized in the 1910s. His philosophy evolved into Sasang theory, and yet, it hardly settled firmly in the circle of oriental medicine in Gyeongseong.

Then in the mid-1920 and afterwards, his reputation began to grow. This was facilitated by Lee Eulho (李乙浩), one of main discussants in disput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that arose in the 1930s. Lee Eulho defined nature of Lee Jema's theory as constitutional medicine, and introduced a philosophical, medical, and pharmacological analysis of

*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o the public through newspaper articles. Eventually Lee Jema became one of leading medical figures of Joseon

Dynasty, and his book *Donguisusebowon* was raised to the status of one of two pillars in the medical society along with Heo Jun’s *Donguibogam* (東醫寶鑑). This transition, or the process by which new classics came to be established in Oriental medicine, showed how a basis for medical authority shifted from medieval norms related to social status to academic integrity and perception of the public.

One of interesting aspects in debates regarding Lee Jema and his book *Donguisusebowon* is that while the emph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based on a nationalistic view, the academic backgrounds — medicine in particular — of the figures who tried to reassess Lee Jema had little to do with a nationalistic view. Jang Gimu (張基茂), Jo Heonyoung (趙憲泳), and Lee Eulho all had extensive academic expertise, and they were also strongly affected by academic atmosphere and trend in Japan. Presumably this was possible because medicine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operates on dual layers of theory and practice.

